

신(新)여름나기

비처럼 쏟아지는 땀방울도
극한으로 찾아오는 고통도
고지를 눈앞에 둔 그들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기에 더 뜨거워지는 그들의 열정은
여름의 더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위를 잊은 열정으로
바다 위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세요.

뜨거운 태양과 맞서려면 그보다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모색을 위해 모였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해양관광위원 하례회 개최



지난 7월 16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해양관광위원 하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 해운대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진행된 본 모임에서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문철호 대표이사장이 한국관광공사 정용문 동남권협력지사를 해양관광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모인 해양관광위원들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과 적극적인 해양레저 프로모션 등 구체적인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부산의 특화된 해양레저를 이용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관광이 해양레저산업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2014)' 와,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레저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해양레저 대중화와 해양레저·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에 산·학·연·관계 네트워크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2014)와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주관한다.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2014)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일간,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다.

마리나 산업의 침체, 그리고 다시 솟아오르다

- 일본국제보트쇼 (Japan International Boat Show)



197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쌓은 경쟁력으로 대대적인 마리나 산업을 시작하여 전국 570여 개의 마리나 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10년 뒤에 찾아온 버블 붕괴로 인해 일본의 마리나 산업은 곧 침체하고 만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한 마리나가 영 허사는 아니다. 탄탄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트스키 등을 비롯한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일본국제보트쇼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국제보트쇼로 올라섰다.

일본국제보트쇼는 일본 국내외 보트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보트 산업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쿄 빅 사이트, 도쿄 마쿠하리 메세, 요코하마 파시피코까지 장소를 총 세 번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그 중에서도 2013년에 개최 50주년을 맞이한 요코하마 국제보트쇼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모터보트, 요트, 수상 모터바이크, 제트스키, 소·대형보트, 카약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과 해양 관련 행정 단체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부스도 마련되었고, 그밖에 해양 레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도 소개되었다.



일본국제보트쇼의 가장 핵심은 선박 엔진 및 부품관련 부스이다. 일본국제보트쇼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레저 선박용 엔진을 보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마하와 혼다 등 일본 브랜드가 레저 선박용 엔진 파트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제트스키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본의 레저보트산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은 제트스키를 발명해 낸 곳으로,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1970년 시작한 마리나 산업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해양레포츠를 즐긴다. 점점 규모를 넓히고 있는 일본국제보트쇼가 이러한 강점들을 잘 활용하여 발전방향을 잡는다면 미래 마린산업의 큰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권 해양레저지역-낭만과 함께 하는 해변, 광안리 [부산 > 광안리 편]



‘광안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광안대교는 밤마다 색색의 불빛을 뿜는다. 해변가에서는 다양한 문화축제들이 펼쳐지고 100여개의 횃집과 카페, 레스토랑이 바다를 두르고 있다. 그래서 이곳 광안리는 아름다운 전경과 공연, 먹거리들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광안리 해변 우측에는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장비를 대여하고 해양스포츠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여 한해 2만여 명이나 이곳을 찾는다.

이렇듯 광안리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 레포츠 종목들을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름다운 광안대교와 함께 낭만과 전율이 한데 어우러진 광안리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MARINE LEISURE

■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제트보드 & 제트카약

-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스포츠 중, 광안리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제트보드와 제트카약이다.
제트보드는 엔진이 달린 서핑보드를 말하고, 제트카약은 몸체는 카약인데 노를 젓지 않고 엔진으로 달리는 것이다.
제트보드는 중심대가 있어 스탠딩 자세와 고난도의 기술까지 가능하고, 제트카약은 시속 40km의 속력을 내면서 잘 뒤집어지지 않아 안전하게 앉아서 탈 수 있다.

패들보드

- 패들보드는 서핑보드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눕거나 앉아도 비교적 안전하다.
여성·노인층에 인기 있는 레포츠이고 특히 패들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요가를 하는 '패들보드 요가'도 인기를 끌고 있다.
패들을 저어가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물살이 없는 곳, 파도가 치는 곳, 얕은 곳, 깊은 곳 어디든 이동할 수 있어서 해변부터 광안대교까지 2.5km를 왕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안리 해변 근처의 광안리 서핑학교(X Game Korea)에서 대여할 수 있다.



제트보드 & 제트카약



패들보드



크루즈 요트

- 크루즈 요트는 광안리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간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즐기는 인기종목이다. 계절에 상관없이 탈 수 있고, 특히 태양이 강한 여름철보다는 3~5월 사이와 9~11월 사이에 가장 많이 탄다. 광안리 해양 레포츠센터에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VALENTINO' 요트부터 고급 크루즈 요트인 'SS Yacht' 까지 6~15인승의 크루즈 요트 6대가 정박해 있다.

■ Check Point



☞ 광안리 달빛 수영대회

- 해가 질 무렵부터 동호회별로 그룹 지어 밤바다로 뛰어드는 광안리 달빛 수영대회는 광안리 해변에서부터 왕복 1.6km 구간을 수영한다.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영 거리 1m당 1원씩 적립하는 '1m 1w' 행사도 함께 하여 이렇게 모인 돈은 바다를 살리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2013년에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 부산 불꽃축제

- 매년 10월 말이 되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현란한 빛의 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약 15억 원어치의 총 7만 발의 크고 작은 불꽃들이 공중에서 피어난다.



☞ 부산바다축제

매년 7월 말에서 8월, 약 10일간 해운대와 광안리를 비롯한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 및 요트경기장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음악과 해양스포츠, 공연 등이 바다와 어우러져 그 열기를 더한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민어, 하나도 보이지 않아

특집기획> 수산물로 보는 한국음식문화 - ②



여름 복날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보양식을 먹는다. 옛날 임금들은 복날 최고의 보양식으로 민어탕을 먹었다. 선조들도 그 맛과 영양을 알고 있었던 민어는 최소 10kg은 넘어야 맛이 나는데 이 중에 맛있기로는 산란기 전의 7~8월 민어를 최고로 친다. 산란기에 들기 전 민어는 살과 기름이 잔뜩 올라 매우 고소하다. 더불어 비늘과 쓸개를 뺀 20여 곳의 부위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 바로 민어이다.

민어 뱃살은 기름기가 있어 쫄깃하고 구수하다. 민어 뱃살 안쪽 좌우에 붙어 있는 가슴살 '갯무레기'는 단단하면서도 쫄깃하고 사각거린다. 민어의 부레는 씹을수록 고소해서 특히 찜으로 먹으면 입안에 짹짹 달라붙는 특유의 식감을 자랑한다. 민어 껍질은 전을 부치거나 살짝 데쳐 참기름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 지느러미 뼈와 가장자리 살은 뼈다짐으로 먹는다. 민어 알은 '봄 송어알, 여름 민어 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으뜸인데 술안주로도 적격이다.

여름 복날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보양식을 먹는다. 옛날 임금들은 복날 최고의 보양식으로 민어탕을 먹었다. 선조들도 그 맛과 영양을 알고 있었던 민어는 최소 10kg은 넘어야 맛이 나는데 이 중에 맛있기로는 산란기 전의 7~8월 민어를 최고로 친다. 산란기에 들기 전 민어는 살과 기름이 잔뜩 올라 매우 고소하다. 더불어 비늘과 쓸개를 뺀 20여 곳의 부위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 바로 민어이다.



민어(民魚)는 백성들의 물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적인 고기였다. 그 옛날 여름에는 민어잡이 배들이 바다를 가득 채울 정도로 민어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인천에서 잡은 많은 양의 민어가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이후 민어는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 귀한 고기가 되었다. '한여름 민어 떼 우는 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는 옛말도 있었지만, 이제 민어 떼 울음소리는 전설로만 남았다. 그 많던 민어는 어디로 갔을까. 훗날 책 속에서나 구경하게 될까봐 씁쓸해지는 건 분명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해양레저 비즈니스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 한·중·일·러 해양 정책 협력방안 및 CIQ 프로세스 논의

동북아시아 대표 항만도시로 알려진 부산은 먹거리의 보고이자 물류운송의 길로서만 인식해오던 바다의 범위를 보다 넓혀, 문화와 접목한 해양레저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강국 코리아의 꿈을 꾸고 있다.

해양과 문화, 산업이 융합한 새로운 해양레저문화를 창조하겠다는 당찬 포부로 2013년 첫 걸음을 시작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KIMA WEEK 2014는 '해양레저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의 부흥'이라는 부산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에 여념 없다.



그리고 이러한 KIMA WEEK 2014의 서막을 알리는 국제 컨퍼런스가 9월 30일 벅스코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KIMA WEEK 국제 컨퍼런스는 해양레저 비즈니스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해양관계자들의 기대를 구체화하고, 관련 국가들의 현재와 미래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한·중·일·러 해양 정책 협력방안 및 CIQ 프로세스'라는 주제 아래, 동북아 주요 국가 관계자들이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과제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열릴 KIMA WEEK 2014 개막식에는 기조연설 및 축하를 위해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한 해양레저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일·러 4개국의 해양정책 및 협력에 관한 교류의 장이자 토론의 장이 될 KIMA WEEK 2014를 계기로 앞으로 동북아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해 본다.

해양레저문화 선도자, 인천 AG 선수단장으로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 인천 AG 선수단장 선임



대한체육회는 지난 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었다. 해양레저네트워크의 고문인 대한요트협회 박순호 회장을 '제17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다.

세정그룹의 박순호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대한요트협회장을 역임하며 비인기 종목인 요트를 활성화시키고 선수를 육성하는데 큰 기여하는 등 해양레저문화를 선도해왔다. 특히,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요트가 금 1개, 은 2개, 동메달 3개로 총 6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일조했다.

박순호 회장은 "한국선수단과 한국 스포츠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메달 90개 이상으로 5개 대회 연속 종합순위 2위 달성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회장은 평소 기업경영에서도 모든 문제와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중심 경영을 강조해왔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박순호 회장은 훈련 현장을 방문해 선수단과 함께하며, 선수들의 애로사항과 지원사항 등을 파악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해변콘서트 '바다야 놀자' 개최

- KIMA WEEK 2014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오는 8월 3일,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해변콘서트 '바다야 놀자'가 개최된다.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주최·주관하고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에서 후원하는 본 공연은 매년 여름에 열리는 길거리 무료음악회로,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KIMA WEEK 2014)' 와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사)한국해양레저 네트워크와 함께 더욱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댄스, 노래, 밴드연주 등 100여 명의 학생공연 팀이 꾸미는 다양한 무대를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장 옆에 마련된 KIMA WEEK 부스에서는 행사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되는 KIMA WEEK 2014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컨퍼런스, 광안리 달빛수영대회, 어린이 요트대회, 부산국제드래곤보트 대회, Marine BIFF Zone,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와 함께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육상)과 수영만요트경기장(해상)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국내외 보트 및 해양스포츠 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과 교육체험행사 등 보트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KIMA WEEK 2014는 행사를 즐기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최근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면 komalnet@naver.com로 수신을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뉴스레터'를 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거나
수신 메일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komalnet@naver.com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KIMA WEEK 2014 사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 TEL : 82.51.760.1143 FAX : 82.51.760.1134

Copyright (c) 2014 KIMA WEEK 2013. All Rights Reserved